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과 발제자, 논평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삶·사상 면면을 살피다

6월 22일 대행선연구원 제8회 학술대회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수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자료발굴과 기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구니 선지식인 수인·수옥·장일 스님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을 조명했다.

수인 스님, 자비 실천한 '상불경보살'

보현정사 주지 경조 스님은 '수인 스님의 수행, 사상 그리고 실천' 제하 논문에서 호거산 운문사 초대 주지 성월당 수인 스님(1899~1997)의 행장과 사상을 손상좌, 지인 등의 구술조사를 통해 조명해냈다.

1899년 9월 3일(음)에 태어난 수인 스님은 9세에 입산해 11세에 운문사에서 혜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사미니계 수지 후 1914년 통도사 옥련암 강원에 입교해 사집·사교·대교 등을 수학했으며, 1923년 통도사에서 혜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조 스님은 수인 스님의 사상을 '무욕'과 '정진행'을 통해 "'상불경보살행'을 평생 해오신 선지식"이라고 정리했다.

스님은 "시봉 상좌 등은 수인 스님에 대해 '중노릇을 잘한 것,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라고 술회·평가했다. 이는 불제자이자 출가수행자로서 자신의 본분과 본심에 최선을 다한 수인 스님의 노력에 대한 상좌들의 평가"라면서 "또한 수인 스님은 출가자로서 세속적인 가치에 근거해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일체 분별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무욕과 정진을 통해 수인 스님이 보인 것은 자비행이었다. 실제 조계종 경상북도종무원에 서 작성한 수인 스님의 개인신상조사서의 특징란에 '자비인내'가 기록된 것은 스님의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후학인 경조 스님이 수인 스님을 모든 일체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공경심을 갖고 대하는 '상불경보살'로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조 스님은 "상불경 보살행은 '불성론'이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삶으로 구현한 실천"이라며 "노보살님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부처님으로 대하는 스님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상불경보살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인 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정리하고 분석할 연구자료가 많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는 다른 근현대기 비구니스님 연구에서도 반복될 문제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수옥–경봉 스님, '법거량' 한시 교유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 원과 스님은 '비구니 수옥과 경봉 선사의 한시 교유'에서 비구니 대강백 화산당 수옥 스님(1902~1966)의 친필 노트인 〈도가한화〉를 근거로 1957년 4월부터 1965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봉 선사와의 한시 교유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비구니 수옥 스님과 당대 선지식 경봉 스님의 한시 교유는 1957년부터 4월부터 1965년 10월까지로, 수옥 스님의 세납은 56~64세. 경봉 스님의 세납은 66~74세였다. 두 스님의 한시 교유는 총 14차례 이뤄졌는데, 1966년 이후 한시 교유가 끊긴 것은 수옥 스님이 지병으로 입적했기 때문이다.

한시 교유의 시작은 수옥 스님이 물꼬를 텄다. 수옥 스님은 1957년 부산 범일동 반야사에서 경봉 스님을 만나 자신의 한시를 보여줬는데, 내용은 내원사를 중창하고 선원을 경영하는 소회가 담겼다. 이 시를 경봉 선사가 차운하면서 교유는 시작됐다. 14차례 이뤄진 한시 교유를 소재별로 살펴보면 △새해 축하 △안거 해제 △내원사 중창 △윤현진 선생 찬탄 △구하 천보 추모 등으로 분류된다.

원과 스님은 "기본적으로 해제 운과 그 차운은 싯구를 통해 법거량, 즉 스승이 제자들의 공부를 점검하거나 제자가 스승에게 참선체험을 보고하는 선문답 성격을 지닌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선가의 해제일, 공개적으로 발표된 해제 운을 차운한다는 의미는 수옥 스님이 선리에 대한 이해, 그에 수반된 참선 수행, 한시로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췄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옥 스님과 경봉 스님이 주고받은 한시는 새해를 축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한시들도 4차례가 있다. 그것들 역시 법거량 차원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선객들을 지도하는 대선사와 수옥 자신의 안목을 공유할 만큼 선사상에 대한 이해와 참선 수행이 선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일 비구니 없으면 동화사도 없다"

팔공총림 동화사 부도림에는 비구니 선지식 도림당 장일 스님(1916~1997)의 부도가 있다. 장일 스님은 팔공총림 산내 암자 내원암의 스님이었지만 동화사 부도림에 부도를 세우는 것에는 비구스님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내원암에 세워도 될 부도를 왜 본사 부도림에 세우냐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총무원장을 역임한 의현 스님(현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이 동화사 비구스님들에게 호통을 쳤다고 전해진다. 당시 의현 스님은 "불교정화운동 때 장일이라는 비구니가 없었다면 동화사도 없었을 것이다. 비구들이 동화사를 차지하고 따뜻한 방에서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던 것은 장일 덕인 줄 알라"고 일갈했다.

의현 스님이 비구스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까지 상찬한 비구니 '장일 스님'의 면면을 조명한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동국대 선학과 박사인 여현 스님은 '도림당 장일의 수행과 호법활동'을 통해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던 선지식 장일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폈다.

장일 스님은 1916년 3월 15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었기에 조부와 아버지를 이른 나이에 잃었다. 배움이 짧았던 모친은 장일 스님에게 많은 책을 보게 했는데, 스님은 서산·사명 대사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고 출가의 마음을 냈다. 출가의 이유는 도를 깨우쳐 얻은 힘으로 나라를 독립시키고, 호국선열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 지월 스님(사진 왼쪽), 김태수 교수(사진 오른쪽)와 혜수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지식 수인·수옥·장일 스님 조명
대행 선사 사회 참여 연구 발표
묘공학술상·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묘공학술장학생 박소은(독일 함부르크대 석사과정, 사진 왼쪽) , 박훈(동국대 박사과정, 사진 오른쪽) 씨와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친은 출가를 바라지 않았고,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고무신을 연못에 벗어두고 출가했다. 그길로 함경도 안변 석왕사, 함흥 기주사 등을 다녔지만 출가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다가 1937년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서 오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39년 동화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41년 해인사에서 경하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장일 스님은 '불설(佛說)', 즉 경전에 근거해 수행 정진했다. 후학들에게도 '재물과 이성문제가 불러오는 화는 독사에 물린 것보다 심하다(財色之禍 甚於毒蛇)'는 〈계초심학인문〉의 구절을 항상 상기시켰다.

여현 스님은 "스스로 일군 동화사 내원암을 이내 내려놓고 운수납자로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수선안거를 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불교정화운동에서도 장일 스님은 일익을 담당했다. 정화운동 당시 장일 스님은 사제 성원·상좌 원명 스님과 경남 지역 비구니스님들을 규합해 서울에서 공양주와 채공을 살게 하며 힘을 보탰다.

여현 스님은 "장일 스님은 여러 활동을 통해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높였고, 사회 일원으로서 비구니스님의 역할을 명확히 보였다"며 "장일 스님은 한국불교 비구니 교단을 최성기에 올려놓은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대행선은 진실이자 방편, 방편이자 진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진실과 방편의 중도'를 발표하고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대행선' 선풍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펼쳐냈는지를 진실과 방편의 시각으로 살폈다.

일반적으로 방편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 방편은 '중생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해석하면 "중생을 구제해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방편이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 불교가 전해졌을 때 낯선 불교의 개념을 익숙한 그들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던 '격의'도 방편의 일종이다. 최 연구원은 "중국불교의 방편은 처음 불교가 전해지던 시기의 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격의가 돼 중국인의 불교 이해에 예외없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대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대행 선사가 보인 방편은 무엇일까.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방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일상 언어로 이뤄지는 법문"이라며 "선사의 법문에는 한문 원전을 인용하는 일도 거의 없고 어려운 불교 개념어도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의 용어로 그냥 알기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 선사가 '참선이 바로 생활'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최 연구원은 "'일상이 바로 선'이라는 관점은 대행 선사만의 특징은 아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중국불교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선종의 기치가 '일상의 모든 것이 선'이었다"면서 "독자적으로 보인 대행선은 역설적으로 선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행 선사 깨우침, 에코다르마 맞닿아"

박진영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한국불교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습: 대행 스님의 경우'를 발표하고 대행 선사의 오도(悟道)가 사회참여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폈다.

먼저, 박 교수는 대행 선사의 오도 과정을 조명했다. 1927년 태어난 대행 선사는 구한말 대한제국 무관이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처음엔 크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7살에 집이 어려워지면서 흑석동 근처 산간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삶을 연명했다.

이후 대행 선사는 산과 들을 다니며 존재의 근본을 배워나갔다. 박 교수는 "대행 선사에게는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물질적 풍요도, 가족을 통한 보호도 기능하지 않았다. 이처럼 나체로 맞아야만 했던 존재자의 고독이기에, 그 고독을 통해 얻은 깨침의 심연은 깊을 수밖에 없었다"며 "깨침의 깊이가 깊었기에, 존재의 고독과 아픔은 단지 대행 선사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특히 존재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나는 지금도 가엾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못난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린다.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에게도 마음이 끌린다"고 설한 바 있다.

이런 대행 선사의 산중 깨우침을 박 교수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신학자 이정용(1935~1996) 교수의 '주변인' 이론과 연계해 해석했다. "종교는 중심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어서는 안 되며 중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정용 교수의 주장과 존재의 주변인에게 느끼는 대행 선사의 마음은 사실상 종교의 존재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대행 선사의 산중 깨달음이 서구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코다르마'의 현실적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행 선사는 자연에서 외부세계와는 달리 존재의 평등성을 보았다"면서 "업의 사회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불교 수행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실상 대행 선사의 삶은 개인의 깨우침에서부터 사회참여로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사회참여는 산간에서 느꼈던 다른 존재자에 대한 아픔, 공감과 공유성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면서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또한 외부에서 일어난 사회 현실적 문제에 대한 참여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의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6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올해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는 중앙승가대 강사 지월 스님과 김태수 대진대 연구교수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700만원의 연구비가 수여됐다. 묘공학술장학생으로는 박소은(독일 함부르크대 석사과정)과 박훈(동국대 박사과정) 씨가 선정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비구니 연구 앞장 대행선硏 감사"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입재식에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근·현대 비구니 선사들의 삶과 수행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중요했던 자료나 수행 기록은 보관이 쉽지 않아 버려지거나 산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고 비구니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앞장서는 대행선연구원의 노고가 고맙고 또한 든든하다"고 상찬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네 분의 선사 모두 일제 강점기를 보내며 수행정진하고 대중을 화합으로 이끄신 분들이다. 이 자리는 선사들의 삶을 감동으로 전하는 한마음 되어지는 자리"라며 "오늘의 공덕으로 비구니선사들의 삶과 수행, 사상이 계승될 것이며, 후대에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 이어 근·현대 비구니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록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자료를 정리, 수집해 연구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넘어가면 삶의 족적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에 '자료발굴과 기록'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대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